

21 세기 중국의 사회주의 미술시장과 북한미술

조민주

1949년 신중국 설립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환으로 사회주의 미술 문화 형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국의 사회주의 미술은 문화혁명시기를 거쳐 개혁개방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는데, 특히 20세기 말 서구 자본주의 미술체제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21세기 들어 큰 변화를 겪었다. 최근 북한미술은 중국 내 사회주의 미술계에 새로운 대안 혹은 취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1세기 들어 더욱 다변화되고 개방적으로 변한 중국 사회주의 미술의 현 상황을 반영한다.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도입 이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지만 치열한 경쟁과 거대 자본이 지배하는 삶에 지친 중국인들은 서구화된 일상과 사회주의 정치체제 사이에서 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여전히 자본에 물들지 않은 사회주의 풍경을 담고 있는 북한 미술에 주목하며 옛 시절을 추억하고 감상하고 있다. 특히 북한미술의 가격이 다른 중국과 서양의 현대 미술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은 중산층 애호가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21세기 북한 미술은 오래된 사회주의 미술의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 중국인들의 추억과 향수 그리고 중국식 사회주의 미술시장 체제와 맞물려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조민주는 2011년부터 중국 절강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고미술학원에서 미술사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개설과목으로는 <동양미술사>, <한국미술사>, <비교회화>, <중국화 형식 미학>, <Introduction to the Art of China> 등이 있다. 주 연구분야는 '중국 명·청대 회화와 지도와의 관계'이고, 최근 21세기 중국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 미술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清代 河圖 제작과治水記錄畫>, <清代宮廷繪畫以及地圖制作共有的制度史背景>, <18世纪朝鲜实学者的燕行与西洋美术>, <明清西方天文學對朝鮮時期地球研究的影響及其視覺表達 : 以韓國所藏《坤輿萬國全圖》為中心> 등이 있다. 중국 절강대학과 한국 고등교육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高麗畫全集>의 제 1권인 <고려화전집 1: 구미소장편> (2019)의 출판사업에 참여하였다. 덕성여자대학에서 전산학과 미술사학을 전공했고, 영국 런던대학 SOAS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에서 미술고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중국 청화대학 미술학원에서 미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시: 2020년 11월 3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210호)